

출장보고서

- 5th PPP Annual Meeting
Public Governance Committee, OECD -

2012. 6.

박 현

 공공투자관리센터

I.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① OECD 공공지역개발국(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이 OECD 본부에서 주최하는 고위재정전문가(SBO: Senior Budget Officials) 회의의 제5차 민간투자회의 (5th Annual Meeting of Senior Public Private Partnerships Officials)에 참석하여,
- ② 한국의 PPP 사업 사례(항만부문)를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PPP 제도에 있어서 Governance 틀이라는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
- ③ 그 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감사기관의 역할과 PPP에 대한 언론의 인식 등에 대한 주제의 토론에 참석

※ PPP 연례회의로서 1~4차 회의는 김재형 전임소장이 참석

□ 출장자

-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박현

□ 출장기간:

- 2011년 3월 25일(일) ~ 2011년 3월 28일(수)

□ 출장 일정

- 2011년 3월 25일(일) : 서울 출발, 프랑스 파리 도착
- 2011년 3월 26일(월) : OECD 회의 참석, 발표
- 2011년 3월 27일(화) : OECD 회의 참석, 지정토론
- 2011년 3월 27일(화) : 파리 출발
- 2011년 3월 28일(수) : 서울 도착

II. 주요 활동

※ 고위재정전문가(SBO: Senior Budget Officials) 회의의 제5차 민간투자 회의 (5th Annual Meeting of Senior Public Private Partnerships Officials)에 대한 개요 및 발표자료는 OECD 홈페이지에 게재

http://www.oecd.org/document/54/0,3746,en_2649_34119_49910035_1_1_1_1,00.html

1. 발표: PPP in the Seaport Sector: Case Study in Korea (첨부)

- 항만부문 민자사업 현황과 성과를 소개
- 민자사업 추진절차와 제기된 쟁점을 소개
- 항만부문 민자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소개
-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소개

2. 지정 토론: PPP governance in Indonesia: Policy, Process and Infrastructure (첨부)

- OECD가 수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민간투자사업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 보고서(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 세션
 - 최근 OECD의 개도국에 대한 정책자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G20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책자문을 정중하고 비중있게 처리하는 인상을 받음.
- 인도네시아는 IIGF, IIFF 등 PPP 관련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3차례의 Infrastructure Summit를 통해 다수의 PPP 후보사업을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PPP 추진에 매우 적극적이었음. 또한 PPP 관련 제도 및 지원기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PIMAC을 비롯한 한국의 관련기관에 방문하고, MOSF(구 MPB)와 MOU를 체결하는 등 한-인니간 PPP 분야 양자협력도 활발히 추진해 왔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협약이 체결된 사업이 1건이라는 것은, 기존에 구축된

institution을 보완하고 실제적인 사업 실행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앞서 PPP를 다수 추진한 국가의 경험 및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제도환경 및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OECD paper는 이런 점에서 타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현재 인도네시아 PPP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회의 참석 및 토론

- 이번 회의는 이외에도 최근의 PPP 시장 동향, PPP에 있어서 감사기능의 역할, PPP에 대한 언론의 태도, 재정관리 측면에서 PPP 사업의 관리 등 흥미있고 유익한 주제의 세션들로 구성됨.
- OECD 회원국가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터키, 브라질 등 많은 나라에서 참석하여 자국의 PPP 관련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
- 한국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한국의 재정지원제도와 2012년에 변경되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III. PPP에 대한 OECD의 정책권고 방향

- 최근 EU 국가들의 재정위기 현황을 반영하여 OECD 및 회원국들의 기조는 PPP 사업 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PPP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향후 liability를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수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추세임.
- 구체적으로 PPP에 대한 OECD의 포지션은 “Draft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rinciples for Public Governance of PPP”에 반영되어 있음.
 - 공공부문은 신중한 fiscal actor로서 행동하여야 하는데, 지불가

능하고, VfM 확보, 우발채무가 적을 때만 PPP를 추진

- PPP를 추진하는 교통, 교육부문 등의 투자가 사회전체의 투자 수익과 비교하여 필요성을 판단
 - 민간과 정부간 적절한 리스크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같은 OECD의 포지션은 개도국의 경제성장 필요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PPP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됨.